

한살림 마을모임

한해살이 안내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05 한살림 마을모임에 초대합니다

1. 마을 그리고 생활공동체, 오래된 새길
2. 마을모임, 조합원이 한살림을 만나다
3. 마을모임 한해살이...

13 겨울에서 이룬 봄 : 모임의 새로운 준비

4. 땅고르기 : 마을의 토양알기
5. 모임의 씨앗 : 마을지기 찾기
6. 싹틔우기 : 마을지기로 성장하기
7. 마을모임 뿌리내리기 : 홍보
8. 마을모임 공간 찾기
9. 마을모임 거름주기 : 모임의 촉진도구

20 봄 : 모임의 시작

10. 마음열기
 - 1) 긴장풀기 활동
 - 2) 서로알기 활동
 - 3) 주제알기 활동
11. 모임 규칙 만들기
12. 모임 진행 순서

30 여름 : 모임의 성장

13.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14. 상대의 이해로 깊이 있는 관계 만들기
 - 1) 품격 있는 수다
 - 2) 공감하기
 - 3) 잘 묻기
15. 다양한 생각, 새로운 생각
16. 생각을 모으고 합의점 찾기
17. 갈등을 넘어서

40 가을 : 모임의 결실

18. 활동의 확장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46 겨울 : 모임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19. 나의 경험 정리하기
20. 공동경험을 집단지성으로 만들기

51 마을모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1. 모임운영 Tip
 - 1) 마을모임 연간 실천 활동(예시)
 - 2) 절기음식
 - 3) 한살림 열 가지 다짐
 - 4) 마을모임 관련 한살림의 생활수칙
 - 5) 마을모임 관련규정(예시)
2.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 지역살림

한살림 마을모임에 초대합니다





01 마을 그리고 생활공동체, 오래된 새길

마을 ...

요즘 들어서 전국적으로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자녀 교육과 일자리, 집값 문제 등으로 수시로 이사를 해야 하는 도시민들의 관심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모듬 살이 공간인 마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을을 중심으로 협동과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은 소통을 통해 서로 돌봄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활공동체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말'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흐르고 이어지는 곳입니다.

생활공동체 ...

한살림은 일찍이 공동체 공급을 통해 생활공동체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한살림 물품을 나누면서 모임을 만들고, 이곳을 통해 생활을 공유하고 환경실천 활동도 하고 생산지도 방문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익히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조합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마을모임은 한살림이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살림의 꿈 ...

한살림은 그동안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조직 규모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초창기에 비해 조합원 간의 공동체적 친밀관계가 많이 약해졌고 마을모임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어서 공동체 공급은 사라지고 대다수는 지금 매장과 개별공급을 통해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공동체운동에 대한 한살림의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공동체 세상을 실현하고자 시작한 것이 한살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살림이 마을모임을 비롯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기초조직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것도, 지역살림운동을 통해 한살림이 조합원과 함께 지역사회와 보다 넓고 깊게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새길 ...

마을, 협동,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그래서 더욱 더 한살림의 기초조직으로서 마을모임의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 보람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마을모임들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을모임은 한살림의 '오래된 새길'입니다.



02 마을모임, 조합원이 한살림을 만나다

한살림은 조합원과 이웃이 함께하는 마을모임에 이러한 희망을 담고자 합니다.

마을모임은 한살림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조합원과 함께 새롭게 펼쳐가는 곳입니다. 한살림을 통해 관계 맺은 이웃들이 마음 편하게 소통하고 생활나눔이 이루어짐으로써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내는 곳이 마을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을모임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공동체적 관계로 만들어나가는 경험을 쌓는 중요한 곳입니다. 마음 맞는 이웃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마을사랑방 모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관심과 활동 영역을 이웃과 지역사회로 확장시킴으로써, 조합원이 생활하는 삶을 살림의 그물망으로 짜나가는 한살림 생명협동운동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마을모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을모임은 한살림이 조합원과 만나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핵심 단위입니다. 마을모임을 통해 한살림이 지향하는 가치와 조합원의 생활의 필요가 만나고,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마을모임은 조합원이 한살림의 가치나 정책,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한살림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수렴되고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마을모임은 조합원이 한살림운동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곳입니다. 조합원은 마을모임을 통해 한살림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연 대화와 경청과 공감의 능력을 길러냅니다. 또한 대의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조합원 활동에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갑니다. 마을모임은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원이 마을지기과 활동조합원을 비롯해 한살림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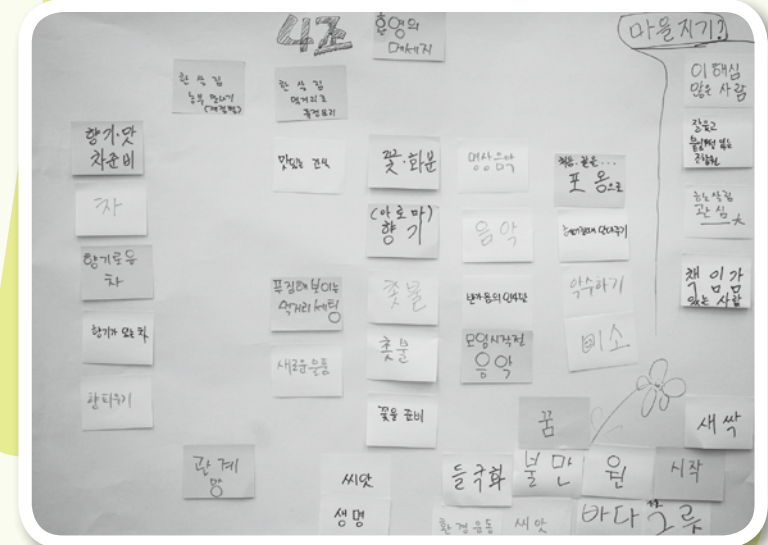
03 마을모임 한해살이...

마을모임은 조직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마을모임의 운영 방식도 생명의 순환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땀 흘려 가꾸고, 한 해 농사에 감사하며 생명의 먹을거리를 수확하고 나누듯이, 마을모임도 계절의 순환주기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을모임의 한해살이를 시작해 봅니다. 매년 설레는 마음으로 조합원을 초대해 마을모임을 일구고, 즐겁게 활동을 펼친 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다시 준비하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살려내는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활동가들이 말하는 한살림 마을모임이란?

- 복닥복닥, 정다운, 사람냄새나는 도란도란, 통한다는, 학습하는 맛과 건강을 살리는 따스한 사람들의 공동체
- 잔치/한공간/맛있음/공통의 관심/놀이터/나눔(밥, 이야기)
- 정보공유공간/즐거움/어색/설레임/친근함/함께/가까운 동네
- 따뜻한 수다/상쾌함/유익함/물품/공통의 생각과 취미 체험/초록/고집/아이들소리/차분함/작지만 강함
- 씨앗/생명/환경운동/들국화/불만/시작/새싹/바다/첫그릇/꿈
- 연두색/웃음소리/사랑열매/검소/비빔밥/담백함/유기농/신뢰/포트락



꽃을 보려면

• 정호승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겨울에서 이른 봄: 모임의 새로운 준비

한 해의 농사는 추운 겨울부터 시작된다.

입춘(立春)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지만 날씨로는 한겨울이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위한 봄이 준비되고 만들어진다.

마을모임 농사도 이 시기에 이미 시작된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잘 갈무리하고, 수확한 열매에서 새해 농사를 위한 씨앗을 골라내고, 씨앗이 심어질 터를 잘 다듬어야 한다.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넣고, 씨앗을 손질하는 것과 같이 마을모임 농사도 여기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04 땅고르기 : 마을의 토양알기

마을모임의 토대가 되는 마을의 '땅'은 어떤 모습과 상태일까? 마을의 모습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마을의 역사, 구성원들의 성향, 현안과제 등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모임이 이루어질 마을이 담고 있는 공간과 장소의 특성,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알아가는 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

마을에 어떤 조합원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들의 관심과 필요는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신규 조합원의 관심사와 욕구, 연령대에 따른 현안, 지역사회의 공통과제에 대한 반응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마을모임의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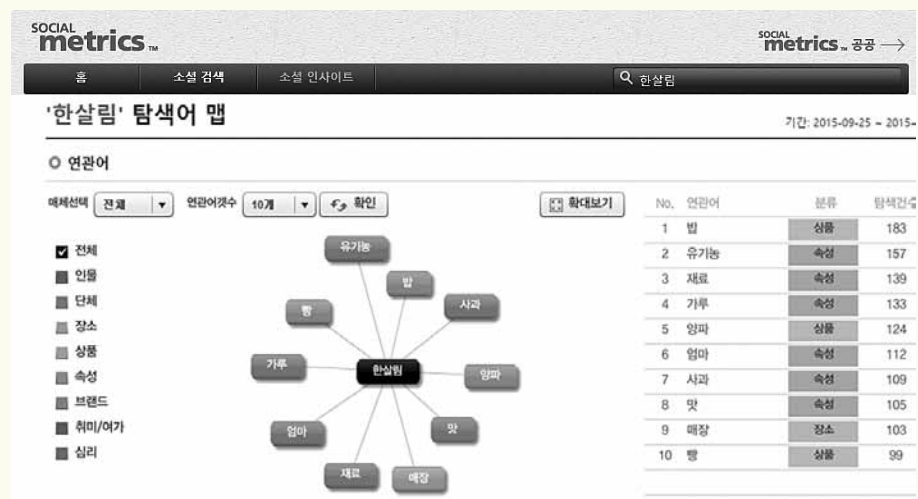
지역사회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행정에서부터 골목마다의 민원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다. 이것을 풍부하게 조사한다면 올해 마을모임에서 다룰 수 있는 공동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땅고르기의 작업은 마을모임이 속한 지역의 운영위원회, 이사회, 활동사무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TIP

조합원들의 관심사, 주민들의 트렌드를 쉽게 파악해 보는 Big Data 활용법

어떤 주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트렌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 <http://www.socialmetrics.co.kr>에 접속해서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면 해당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고 구성되는지를 마인드맵, 그래프, 통계수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모임의 주제를 준비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05 모임의 씨앗 : 마을지기 찾기

마을모임은 모임의 씨앗인 '마을지기'가 있을 때 가능하다. 마을모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을모임은 의미 있는 걸음을 뚝 수 있는 것이다.

마을지기를 세우는 과정은 먼저 기존 마을모임이나 한살림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 중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는 데서 시작한다. 마을모임에 필요한 리더십은 한살림의 정신과 가치를 이해하고 함께 하는 다른 사람을 모시는 품성을 가진 사람, 공동체를 조화롭게 이끌고 관계를 조정하는 사람, 모임을 통해 자기성장의 보람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활동사무국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섬세한 눈으로 조합원들을 살펴서 마을지기의 후보를 찾고 지기로서 역할을 권유한다. 물론 많은 경우 권유를 받은 사람들은 부담감과 두려움으로 사양하기 쉽다. 그럴 때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조언하고 격려함으로써 부담감을 덜어내고 마을지기로서 역할을 승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한살림운동과 기초조직 활동에 있어 중요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은 마을모임을 위해 활동사무국에서 조합원을 모아 먼저 모임을 만들고 나서, 그중에서 한 분을 마을지기로 선출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보다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마을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모임을 만들기 전에 마을지기 후보자를 먼저 찾고, 그 후보자와 함께 마을모임을 기획하고, 마을지기가 주축이 되어서 조합원들에게 마을모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을지기가 마을모임을 기획하고 제안하고 조합원을 초청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06 싹틔우기 : 마을지기로 성장하기

마을모임을 이끌어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모임의 '지기'로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서 도와야 한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 햇빛, 물, 온도가 필요하듯이, 마을지기가 성공적으로 모임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잘 갖추도록 마을지기 교육 과정을 준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예, 마을지기 학교, 마을지기 아카데미 등)

❖ 한살림에 대한 이해

마을지기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살림의 존재이유를 이해하는 일이다. 유홍준 교수는 고전을 풀어서 알게 되면서 달라지는 사람의 태도와 성장하는 모습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한살림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 모임의 기술 익히기

최근의 환경은 모임을 만들기 점점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 바쁜 일상과 불안한 미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 이런 조합원들의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다름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공감하는 능력, 모임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정하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 자신의 계획 세우기

마을지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 가정, 마을, 여러 집단 속에서 풍요로운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훈련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을지기가 되는 것은 인생 학교에서 실습생으로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을모임이 부담스러운 곳이 아니라, 마을지기로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모임을 기획하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에도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변화하고 싶은 인생계획을 세운다면 마을모임은 의미있는 변화의 플랫폼이 된다.



07 마을모임 뿌리내리기 : 홍보

❖ 마을모임을 어떻게 알릴까?

마을모임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마을모임 안내 문자를 보면 대부분은 한살림이 알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전한다. 아무리 분명하게, 친절하게, 다양한 매체를 세련되게 활용해서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마음속으로 다가가지 못하면 전달의 효과는 떨어진다.

한편 조합원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내용이 다소 거칠고 불편하더라도 마음속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홍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찾아서 그것을 친절하고 세련되게 전하는 일이다.

조합원들이 듣고 싶은 마을모임의 홍보내용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일상 생활에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되는 것을 한살림의 가치로 재해석해서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즉 마을모임 홍보는 마을모임에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을모임 자체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참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한살림이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예1) 마을모임 홍보: 마을모임에 오시면 맛있고 몸에 좋은 A 물품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꼭 오세요.

예2) 마을모임 의미 알리기: 요즘 문제가 되는 A 물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을모임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을모임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면 듣는 사람들도 자신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고, 홍보를 통해서 한살림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 가장 좋은 홍보는 아는 사람이 말로 직접 전하는 것

대체로 홍보전단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서 마을모임을 알린다. 기존의 매스미디어에서 하는 광고나 안내와 별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배포한 수량에 비해 참가하는 조합원 숫자는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가까운 지역에서 운영되는 마을모임의 특성상 얼굴을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 친근한 장소와 마음이 묻어나는 홍보물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포스터? 예고편? 배우? 감독? 장르?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친구의 추천이다. 한살림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해본 사람들의 추천이다. 마을모임의 가장 강력한 홍보는 기존 경험자들의 입을 통한 홍보다. 조합원들의 입을 통해 마을모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옆집에 직접 전할 수 있는 한 개의 소중한 홍보 물품이 수십 통의 문자보다 홍보 효과가 높을 수 있다.

08 마을모임 공간 찾기

마을모임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는 어디일까? 가장 좋은 장소는 조합원의 집을 이용하는 것이다.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마을을 개방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서로의 집을 방문해서 교류하고, 친근한 이웃관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 세대가 바뀌고 생활양식이 변화하면서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모임을 가지기에 최적의 장소는 참가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마을모임의 장소로 마을의 공유공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모임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회의실, 작은 도서관, 마을회관 등 마을의 공유공간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특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한다는 장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기능이나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 사람들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공간은 새로운 장소로 변화된다. 즉 공간(Space)은 단순한 물리적인 개념이지만 장소(Place)는 사람들의 의미가 담기면서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잠깐!

● 공유공간이란

- 공유공간은 소 생활권 내의 주거단지 혹은 주거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모여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이다.
- 공유공간은 아파트 주거단지 내 주민들의 생활복지에서 문화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권, 소유권, 영역권을 가지는 반공적(半公的)·반사적(半私的) 영역의 개념이다.

● 공유공간의 역할

- 첫째, 개개 단독주택에서는 소유하거나 제공하기 힘든 중·대규모의 다목적 행사실, 손님 숙소, 작업실, 여가·체육 운동 공간, 도서실 등 여러 종류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둘째, 거주자 간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아이돌보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하는 기회와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 셋째, 안전감을 느끼게 되고 친밀한 이웃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경제적·실제적·사회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안내서(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09 마을모임 거름주기 : 모임의 촉진 도구

모임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생각과 메시지들을 모으는 시간이다. 모으고 공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데, 표현하는 도구, 표현된 것을 수용하는 도구, 공유하는 도구들이 그것이다.

❖ 상징

한살림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철수 화백의 밥그릇과 새싹로고가 있다. 이 로고는 한살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각 마을모임도 자신만의 상징을 만들거나 마을모임의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모임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모임 상징은 장소가 바뀌더라도 모임의 분위기와 중심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예: 상징 깃발 만들기, 모임이름 짓기, 문패 만들기)

❖ 도구

볼펜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두세 사람 정도의 범위로 제한된다.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임펜이나 매직펜이 필요하다. 이처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도구도 전달하는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작은 종이와 큰 종이 역시 각각 전달의 범위와 용도에 따라 다르다. 포스트잇은 쓰고 붙이고 분류하고 통합하는 데 적당하다. 물론 포스트잇의 크기에 따라 사용용도가 달라져야 한다.

❖ 분위기

낯선 장소에 들어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그 장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식하게 된다. 오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해서 모임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모임은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그 장소가 우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모임공간 입구에 따뜻한 환영문구가 붙어있고, 실내에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달콤한 향기가 나고, 맛있는 다과와 먼저 내미는 손이 있다면 그 장소에 들어서지는 모든 참가자는 이미 한살림 식구로서 깊은 연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립된 채 남을 경계하고 스스로에게 자신없어하는 현대인들에게 한살림 마을모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개인으로 존중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임의 기풍을 만들어 간다면 참가자들은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믿을만한 즐거운 곳으로 마을모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모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봄 : 모임의 시작

마을모임의 주인공은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텔레비전도 내가 나올 때 가장 재미있다. 단체사진도 내 얼굴이 잘 나와야 좋은 사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모임의 시작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주인공이듯이, 마을모임에서도 참가자 개개인이 존중받고 자기 고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만약 모임에서 참가자 각자가 스스로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모임에 참가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함석헌 선생은 개인이 가진 각자의 중요성을 '씨알'이라고 말했다. 각자가 가진 씨알맹이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신이 모임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한다. 즉 마을모임에 참가한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생각, 주장, 의견들이 최대한 존중되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치를 서로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임이 운영되어야 한다.

모임의 초기단계에서 서로의 어색함을 조금씩 풀고 자신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면서 타인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마음열기'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다. 또한 모임의 규칙과 상징을 함께 합의해서 만들면서 모임의 정체성과 친밀감도 높여 나갈 수 있다.



10 마음열기

모임 참가자들이 긴장된 마음을 풀고, 닫힌 마음을 열어, 모임의 주제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마음열기 과정이다. 새로운 참가자들과 마을모임을 처음 시작하면서 서로 낯설고 어색할 때 마음열기 과정을 진행하면 좋다. 나의 마음이 열려야 상대의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지고 공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마음을 여는 과정은 본 행사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마음열기 과정은 3가지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긴장풀기 활동

처음자리는 모두에게 낯설 수밖에 없다. 어색한 상황,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주는 긴장을 해소하고 편안하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음 깨기'(ice break)를 한다. 어떤 진행자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유머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긴장풀기는 참가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동이다. 내 몸을 움직이고, 옆 사람과 스킨십을 하는 것이 긴장풀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6×6>

*이럴 때 해보세요 : 모임 초반에 서로 쉽게 친해지고 싶을 때

*준비하기: 조별 주사위 대소 1개씩, 전지 1장, 수성펜

*진행방법 : 36가지의 이야기 주제를 적은 판을 놓고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해당되는 주제를 찾는다. 그리고 그 주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자신을 소개하거나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 ① 6×6질문판과 크기, 색깔 등 서로 구분이 가능한 주사위 2개를 1Set로 준비한다.
- ② 시작 전에 질문판의 가로방향에 해당하는 주사위, 세로방향에 해당하는 주사위를 정해둔다.
- ③ 참여자들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굴리고, 나온 숫자의 가로세로 교차지점에 있는 질문에 대답한다.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총 2-3회 회전하면 적당하다.

TIP

동일한 질문이 나오면 다시! 패스는 NO!

(질문판 예시)

주사위A 주사위B	1	2	3	4	5	6
1	가장 좋아하는 음악 or 책?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왼편에 앉은 참가자에게) 자유질문 1개 받기	오늘 이 곳에 도착하기 전 기분은? 이유는?	당신의 롤 모델은?	다 같이 안마하며 동요 부르기
2	나 진짜 이런 사람은 못 참는다.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느낌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마을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자기자랑 3개
3	직업 외에 가장 많이 알고 잘하는 일은?	최근 통화목록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사람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 딱 2개만.	나는 ○○중독이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나는 ○○할 때 가장 빛난다 (거만한 표정으로)
4	바로 전 순서 사람이 받았던 질문에 대답하기	지난 일주일간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시간이 있다면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이 계절에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을에서 해보고 싶은 일은?	지금까지 내가 가장 많이 주었던 선물은?
5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선택은?	내년 이맘때쯤 뭐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울함이나 슬럼프를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은?	우리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돌아오는 주말의 계획은?
6	지금 당장 여행하고 싶은 곳은? 이유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올해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 까?	다음 생에 다른 이성으로 태어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시, 혹은 새로 대학에 들어간다면 하고 싶은 일은?	내가 타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출처 : 해보자 마을모임 기법,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 서로알기 활동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타인의 생각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은 모임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 서로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편안한 이야기 소재를 제시하고, 이야기 나눔의 규칙을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진진가: 진짜, 진짜, 가짜〉

*이럴 때 해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재미있게 소개하고, 상대방의 소개에 집중하게 할 때

(이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

*준비 :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각자 자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고르게 한다.
- ②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거짓으로 바꾸게 한다.(예를 들어 1-나의 고향, 2-어릴적 별명, 3-취미를 골랐다면 이 중 한 가지를 스스로 거짓 내용으로 바꾼다)
- ③ 자신에 대한 세 가지를 그럴듯하게 모두에게 설명한다.(저는 고향이 00여서 사투리를 잘하고, 어릴 적 너무 말라서 메뚜기라는 별명이 있었고, 취미는 약간 럭셔리한 그림그리기를 좋아합니다 등등)
- ④ 설명을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거짓인지를 찾아내도록 한다.
- 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하고 정답을 확인한다.





11 모임 규칙 만들기

3) 주제알기 활동

모임의 이유나 목표를 알게 하는 것으로, 주제에 대해 친숙해지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만들게 하는 활동이다. 즉 주제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관심을 높여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주제에 대한 번개연상〉

*이럴 때 해보세요: 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짧게 표현하는 방법

*준비 : 없음

*진행방법

- ① 진행자가 생각할 주제를 제시한다.
- ② 참석자들에게 주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 이미지를 하나씩 찾도록 주문한다.
- ③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번개’처럼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토론이나 비판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한다.
- ④ 관련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도 부여한다. 즉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이야기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한다.

Tip

단 앞사람이 통과를 할 경우 다음 사람은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연속으로 통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을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임의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은 마을모임의 목적과 운영방식을 담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모임이 변질되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살림에서는 성공하는 마을모임을 위해 7가지의 꼭 필요한 핵심요소를 제안한다.

① 즐거움 – “만남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마을모임이 되도록 한다”

이야기와 활동을 나누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충만한 모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참여자들이 모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때 그 모임은 활력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일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열린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예: 영화함께 보기)

② 민주적 운영 – “원칙을 지키면서 모임 목적에 맞게 운영한다”

민주적인 운영은 모든 모임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요건이다. 모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그 상당 부분은 모임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모임의 발전은 구성원들이 민주적 운영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소수의견에 귀 기울이는 방법은?)

③ 친밀함 – “어떻게 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친해질까?”

생활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모임 안에 잘 녹아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예: 조합원 집에서 모임하기, 서로 생일 챙기기 등)

④ 지속성 –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조합원이나 모임, 조직 할 것 없이 모두는 자기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정체 또는 퇴보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임운영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 월1회 1독서)

⑤ 지역성 – “지역에 뿌리내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기본 공간은 마을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녀노소가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다. 한살림이 마을모임을 만드는 공통의 근거는 마을의 공간이 갖는 장소적 특성 때문이다. 같은 동네를 삶터로 해서 살아감으로써 당연하게 되는 공통의 관심사나 과제, 삶의 목표나 가치 등이 마을모임과 함께 하는 지역의 일로 다가오게 된다. (예: 지역 현안이나 정보 공유)



12 모임 진행 순서

⑥ 개방성 - “울타리를 넘어 열린 조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개방성은 살아있는 모임의 중요한 특성이며, 모임 분위기에서도 새로운 회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모임이 개방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할까? (예: 호칭 통일)

⑦ 확장성 - “소통과 교류를 통해 관계망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모임도 정체화 되면 유지가 어렵다. 모임의 정체는 단순히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비전과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예: 마을모임 연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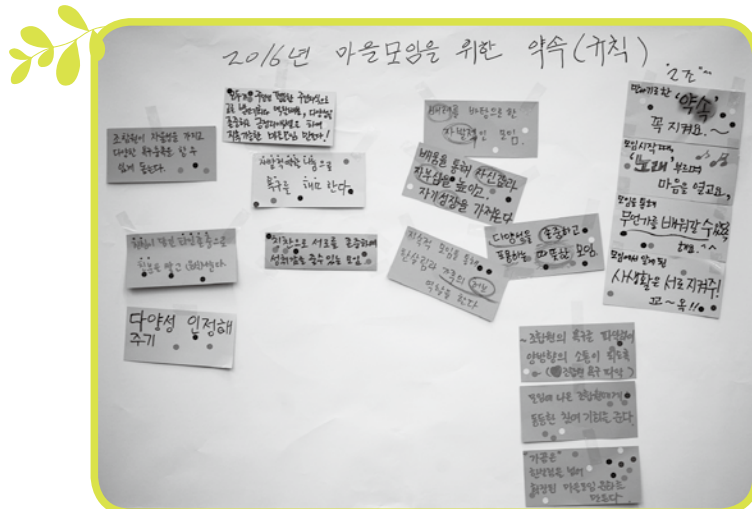
〈마을모임 규칙 만들기〉

*이럴 때 해보세요: 마을모임 한해살이 처음 시작할 때

*준비: 없음

*진행방법

- ① 규칙의 기본요소를 위에서 골라내거나 통합해서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핵심적 규칙의 성격을 정한다.
- ② 각 영역별로 그 주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 ③ 각 생각의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다듬는다.
- ④ 정리된 내용을 한 장에 모아서 쓰고 모임의 규칙으로 선포한다.
- ⑤ 매번 모임 때마다 함께 낭독하여 모임의 규칙을 확인한다.



① 환대의 시간과 마음열기

- 간단한 인사로 반가움을 표시한다.
- 마음열기에 활용할 활동(긴장풀기, 서로알기, 주제알기) 등을 통해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바꾼다.
- 모임의 규칙낭독 등을 통해서 모임을 시작한다.

방문객

•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② 생활 나누기

돌아가면서 서로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눈다. 이 순서에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자 모두가 자신의 생활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징인이 발언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발언의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모임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물품소식 나누기/공통과제

- 물품에 관한 소식을 나눈다
- 논의해야 할 공통과제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④ 주제활동, 의견모으기

모임의 성장 정도에 따라 적당한 주제활동(모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선택하고, 진행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활용방법을 사용할 때 각 모임의 상황을 고려해서 변형하여 사용해도 좋다. 주제 활동은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 시간이 길어질 경우 주제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모임을 마감해야 할 경우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⑤ 마무리와 소감

모임에 시작이 있듯이 끝맺음도 중요하다.

좋은 마무리는 다음을 기약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마무리는 길지 않게 모든 참가자가 함께 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번개프로그램을 활용해 간단한 소감을 '한문장으로 말하기'를 한다면 발언에 부담도 적고 식상하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여름이 오면

• 이해인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자고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신록의 숲이 마음에 들어차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자고 했지?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을 출렁이는
작은 바다가 되자고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나의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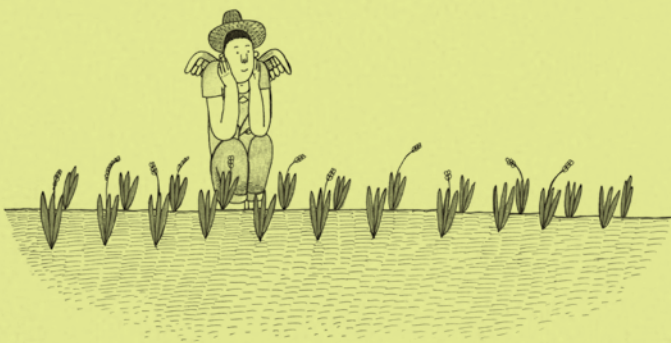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그윽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야.



여름 : 모임의 성장

한살림의 마을모임을 통해 나를 새롭게 이해하고, 타인과 새롭게 만나고,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서로의 다름과 이로 인한 긴장과 갈등은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던 관계가 깊어지고, 만남이 이어지면서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들어서는 문 앞에 온 것이다.



13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

‘나’라는 존재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마을모임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참가자들이 스스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마을모임에서 이런 과정이 모호해지면 생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마을모임에서 내가 존중받고 보 호받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아리랑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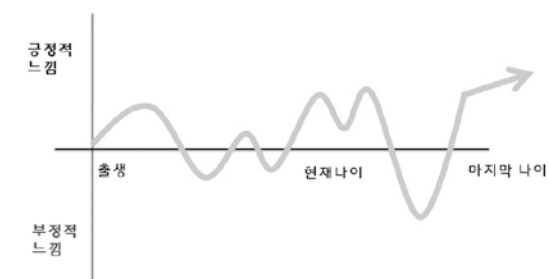
*이럴 때 해보세요: 서로의 삶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나누고 싶을 때

*준비물: A4용지(참가자수), 필기도구, 색연필

*진행방법

- ① 참여자들에게 인생그래프 용지를 1장씩 나누어 준다.
- ② 가로로 선을 하나 그린다.
- ③ 선을 중심으로 위는 좋았던 일, 아래는 힘들었던 일, 왼쪽에서 오른쪽은 나이로 생각하고 점으로 표시한다.
- ④ 점 위에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예: 결혼, 여행 등)
- ⑤ 점들을 선으로 잇는다.
- ⑥ 자신의 곡선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인생 아리랑 곡선





14 상대의 이해로 깊이 있는 관계 만들기

마을모임이 깊어지면 이 모임을 통해서 인생을 함께 나누는 이웃사촌, 삶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 성인이 되어서 만나는 새로운 친구가 인생에서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지 관계의 친밀성을 쌓는 차원을 넘어서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의 일어나야 한다. 모임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공감과 공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경청의 대화가 필요하다.

1) 품격 있는 수다

모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법은 대화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인데, 이 대화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수다에서부터 주제에 대한 토론, 특정한 입장으로 생각을 모으는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런데 많은 대화는 상대방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지만 수다가 왕성하면 그 자체로도 모임의 재미가 생겨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힐링의 경험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지 않고, 특정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으면서, 모두를 성장시키는 대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경청이라고 한다. 나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조언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말해지지 않은 맥락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은 수동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담긴 뜻을 확인하기 위한 맞장구, 질문을 통해 확인하기, 핵심 키워드와 감정을 공유하기 등 적극적인 반응도 필요하다.

2) 공감하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감정도 함께 표현된다. 그 감정은 여러 가지의 기억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표현되는 언어의 이면에는 그 사람만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말하는 당사자도 자신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기 어려울 때도 있고, 듣는 사람 역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서로의 감정을 알아채기 위해서 단순히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듣는 사람의 해석과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Inside Out)에서는 한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복잡하게 표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어떤 감정이 일어나 표현되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과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것을 공감의 대화라고 한다. 경청의 과정을 통해서 공감으로 발전될 때 마을모임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깊은 신뢰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주게 한다.

3) 잘 묻기

좋은 질문은 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대화의 과정에서 더 깊은 수준으로 안내하는 데 질문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질문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대화를 망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지기는 좋은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처음 온 조합원에게 말문을 열게 하는 질문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질문은 어떤 것이 좋을까?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대방에게 ‘왜’라는 질문은 때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럴 때는 ‘무엇 때문에’로 물어보아야 한다.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이야기를 심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상대방의 선택과 생각을 묻는 열린 질문으로 바꿔 주면 대화가 훨씬 깊어지게 진행될 것이다. 열린 질문이란 언제, 무엇을, 어디서, 누구와, 왜, 어떻게 등 소위 5W1H로 묻는 질문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5 다양한 생각, 새로운 생각

마을모임은 다양한 주민들이 드나드는 열린 모임이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진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성을 잘 살리는 것은 마을모임의 장점을 극대화 하는 길이다. 다양성을 잘 발휘하면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아래의 토론과 생각을 촉진시키는 방법들은 마을모임의 다양성을 꽃피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유롭게 생각을 발산하는 브레인스토밍〉

*이럴 때 해 보세요: 주제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싶을 때

*준비물: 소포지, 유성매직

*진행방법

- ① 소포지를 가운데 두고 논의할 주제를 가운데 크게 쓴다.
- ② 참여자들은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간단한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진행자는 소포지에 받아 적는다.

TIP

유의사항

- 비판하지 않기 -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든 환영하라 - 질보다 양을 많이 찾아내자.

〈서로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댓글달기〉

*이럴 때 해 보세요: 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고 싶을 때
옆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나의 댓글달기, 댓글에 이어지는 댓글은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켜준다.
다른 이의 생각을 듣고 나면 나의 최초 생각에 더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준비물: A4크기의 종이를 참가자 숫자만큼, 그리고 볼펜

*진행방법

- ① 각자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쓴다.
- ② 논의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관점, 고민, 주장을 맨 위에 쓴다.
- ③ 다 같이 자신의 옆 사람에게 자신의 종이를 건네준다. 옆 사람의 종이를 받은 사람은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제안을 댓글로 달아서 옆 사람에게 건넨다.
- ④ 자신의 종이가 돌아오면 멈추고, 각자 댓글을 참고해서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정리하고 발전시킨다.

16 생각을 모으고 합의점 찾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마을모임이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공통된 의견을 모으는 합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로가 가진 관심과 생각, 주장이 다를 때 회의를 통해 공통의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라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으며,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이 모두의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의와 결정의 과정이 효율적이 되도록 다른 의견을 배제하거나 다수자의 의견을 단순 취합해서 채택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한 회의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다름과 차이를 잘 살려서 더 수준 높은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모호한 과제에 대해 분별력을 갖게 하는 신뢰의 서클〉

이 방법은 퀘이커 모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최근 국내에서도 종교와 무관하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퀘이커 신자들은 개인이 직면한 어려움과 혼란,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법도 당사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룩한 영성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서로 협력한다. 즉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거울과 같은 반영자의 역할을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명료화 모임’ 또는 ‘신뢰의 서클’이라 부른다.

이 대화의 핵심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반영적 질문을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혼란스러웠던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도울 뿐이다.

*이럴 때 해보세요: 속 깊은 자신의 고민이나, 모호한 자신의 생각, 애매한 갈등, 모임에서 경험한 상처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인함으로써,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과 분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준비물: 열린 마음, 서로에 대한 신뢰

*진행방법

- 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한다.



17 갈등을 넘어서

- ②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인다.
- ③ 사회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원칙을 제시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충고나 제시가 아니라, 오로지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발견하고 대면하도록 도움을 주는 질문만 하도록 한다.
- ④ 사회자는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 ⑤ 진행순서
 - 이야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야기를 할 사람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듣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 3분 정도의 침묵을 함께 한다.
 - 이야기하기: 이야기를 할 사람은 자신의 주제에 대해 말한다. 이 시간에 듣는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5분 정도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
 - 질문하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 이때의 질문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그의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알거나, 감정이 무엇인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 당사자의 생각이 분명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 답변하기: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모든 질문을 듣고 자신의 생각이 정리된 것, 새롭게 고민이 되는 것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필요하다면 몇 차례 더 반복할 수도 있다.
 - 정리하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마무리를 위해서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제안할 수 있다. 같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춤을 출 수도 있다.
 - 기록하기: 한 사람의 기록자는 이 이야기의 과정을 기록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돌려준다. 혹은 질문한 사람들도 짧은 키워드나 생각을 적어서 돌려줄 수 있다. 이처럼 기록한 것은 이야기를 명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마무리: 사회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임이 되도록 보호한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의견과 입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오해, 대립, 충돌, 분쟁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다양한 문화와 생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대에 조합된 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십상이다. 갈등을 봉합하거나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골몰할 것이 아니라, 갈등을 창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면적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양파기법〉

대부분 갈등이 일어나면 각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의견이 다 나름의 논리와 주장,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많은 경우 두 입장의 절충점을 찾아서 봉합하거나 해소하려고 하지만, 대체로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갈등의 실제적인 원인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원인은 드러난 명분이나 의견이 아니라, 대부분 그 아래에 숨어있는 관점이나 생각,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일어난다. 갈등이 생기면 갈등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관점과 과정이 중요하며, 마을지기는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아나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면, 각자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예를 들어 회원들이 일감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생겼다면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혹은 '다 같이 해야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봐요' 등 각자의 입장을 표현한다)

둘째, 자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서로에게 묻고 확인한다.(A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셋째, 상대방에게 보여진 내용의 원인이나 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언제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확인한다. 감정이나 생각이 형성된 객관적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으로 인해 생겨난 생각과 감정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아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군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군요 등 구체적인 문제를 서로 알게 된다.)

넷째, 서로 갈등의 원인을 함께 확인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제의 해결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알게 되고, 차이로 인해서 심화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된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등)

이렇게 갈등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껍질을 벗겨나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양파갈등이해'라고 한다. 표면에서 벌어진 것과 달리 이면에 있는 서로 다른 관점을 알게 되면, 문제의 공통된 원인으로 시선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결의 방법도 그에 맞춰서 새롭게 찾아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임은 더 깊은 신뢰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되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을날

• 라이너 마리아 릴케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태양 시계 위에 던져 주시고,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탐스럽게 무르익도록 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틀만 더 남국의 나날을 베풀어 주소서,
열매들이 무르익도록 재촉해 주시고,
무거운 포도송이에 마지막 감미로움이 깃들이게 해 주소서.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오래오래 그러할 것입니다.
깨어서, 책을 읽고, 길고 긴 편지를 쓰고,
나뭇잎이 굴러갈 때면, 불안스레
가로수길을 이리저리 소요할 것입니다.



가을 : 모임의 결실

모임의 가을은 결실을 만나는 시간들이다. 성장의 여정을 지나면서 생각과 관계는 깊어지고 개인의 삶은 넓어진다. 가을은 각각의 색이 모여 조화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다. 생각이 행동의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마을모임 구성원들은 소모임이나 위원회, 이사 등 새로운 영역으로 자신의 역할을 바뀌가면서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장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구성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그 바람의 내용이 변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모임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임이 기존의 관성에 빠지지 않고 관심과 욕구를 활동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켜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한살림 모임을 통해 축적된 경험들을 위커즈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경제 조직과 연결시켜 넘으로써 조합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한살림 활동으로 풀어낼 수도 있다.

이 시기에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모임 참여자들이 자긍심과 비전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모임의 지속성에 있어 중요하다. 마을모임과 관련해서 각 지역과 단위별로 진행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례 나눔의 자리를 정례화 하는 것도 모임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살림



18 활동의 확장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모임의 성장이 일정수준에 올라가면 구성원 간에 결속력과 활동력도 높아진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물 안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아질 수 있고, 구성원들끼리만 좋은 모임에 머물 수 있다. 물이 고이면 썩는 법, 물은 흘러 큰 강 줄기와 만나야 한다.

마을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보다 확장된 실천을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운영의 모를 살릴 필요가 있다. 튼실한 열매를 얻으려면 결순도 쳐야 하고 대도 세워주고 가지가 올라갈 길도 열어줘야 한다. 이처럼 마을모임에서는 논의된 내용에 따라 다양한 활동 주제를 찾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임으로 확장해 나가는 시도를 하자.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이럴 때 해보세요:**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자 할 때

익숙한 마을을 관찰자, 여행자의 관점으로 실제로 찾아다녀보면 전혀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마을여행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마을 공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과물에 따라서는 이후 공동의 실천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준비물:** 전지, 포스트잇, 마을지도(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출력), 사진기

***진행방법**

- ① 지도를 보고 마을여행 코스를 만든다. 예상되는 길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메모한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도 논의한다.
- ② 서로의 역할을 나눈다. 지도에 그릴 사람, 메모할 사람, 사진을 찍을 사람 등 역할을 나누면 현장에서 발견한 많은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다.
- ③ 현장에서는 사전에 논의했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각 장소마다 멈춰 서서 다각도로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장소를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다양한 상황을 떠올려 보고, 또 그 장소의 등장인물에 따라서 어떤 느낌과 상황이 연출될 것인지를 논의하면 더 확장된 생각을 발굴할 수 있다. (예, 주체별(아이, 청소년, 장애인, 주부, 노인, 외국인 등)로 다양하게 읽혀지는 우리마을 모습)

④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보다 깊이 있는 지역사회의 의제로 발전시킨다.

TIP

우리 마을 올레길

마을지도를 활용하여 각자가 동네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마을지도나 골목길 지도를 준비하여 구성원 각자가 동네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이상 표시한다. (예: 커피 맛이 좋은 카페, 걷기 좋은 길, 주인이 맘에 드는 가게, 나무가 멋진 장소 등등 주제별로 표시된 것들을 길로 연결하여 하나의 코스를 만들어 보고 이름도 붙여본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보물지도를 얻을 수도 있다.)



마을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공통의 관심사나 과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다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의제를 알게 되면 이제 마을의 과제를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즉 우리 마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과 주장이 생기게 되고, 이 입장에 따라서 다른 주민, 단체들에 대한 관점과 관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마을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일에 대해서 손님이나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되며, 그것이 바로 주인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마을의 과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이 모이면 그 뜻을 모아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논하고, 사무국은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예산, 파트너 등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마을모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즉 이전까지 마을모임은 이웃들간의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지만, 마을의 공적인 의제를 가지게 되면서 공공조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마을모임이 사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마을의 공공성이 있는 과제를 다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모임 구성원들도 스스로 마을모임을 공적 위상을 가진 조직으로 이해하게 되며, 실행계획을 마을에서 실천하게 되면 이웃과 행정, 각종 주민단체들도 한살림 마을모임을 새롭게 받아들인다. 이렇듯 마을모임이 마을과 이웃들이 가진 공통의 과제를 다룸으로써 한살림이 추구하는 지역살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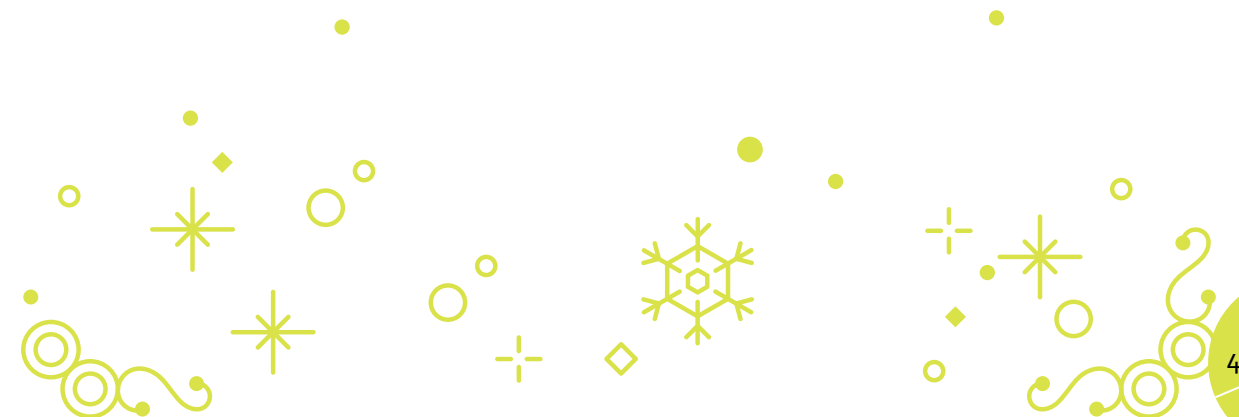
예) 마을모임에서 만드는 실행프로그램: 청소년 마을자원봉사 학교, 아이들과 우리마을 답사하기, 독거노인 반찬봉사, 우리마을 벼룩시장 열기, 친환경 요리교실 등



겨울

•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뼛쭈뼛 흘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덮는
 새 살이 되자





겨울 : 모임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우리 마을모임은 몇 살인가? 몇 년간 근근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사실 몇 살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모임 할 때마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모임이라면 병상에서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와 같은 상황이어서 이 역시 몇 살인가는 의미가 없다. 또한 한여름의 기세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임일지라도 갈등이나 불화, 권태와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순식간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임은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보다는 매 순간 살아있고 그 기쁨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언제까지 모임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모임 안의 갈등과 관계도 새롭게 조정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모임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을 ‘더 이상 모임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내몰려서 모임을 마무리하면 모임에서의 성과는 거의 남지 않는다. 이미 관계는 다 깨어지고 “왜 이 모임을 했던가?” 하는 후회만 남는 상황에서 모임을 정리하면, 새로운 모임에 대한 의욕도 동력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모임의 목표를 달성하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성취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모임을 종료한다면, 그 모임은 참여한 주인공들에게 큰 선물과 같은 것이 된다.

결국 끝도 없이 모임을 지속시킨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만 쌓이는 반면, 평가를 통해 서로에게 축하를 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면 모두에게 축복이 된다. 또한 평가는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 줌으로써,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는 새로운 열매 만들기의 과정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행하는 성과의 공유와 축하와 평가의 자리는 더 풍요로운 수확과 함께 든실한 씨앗을 마련해 준다.

- 개인의 성장을 확인하고, 축하하고, 새로운 발전의 과제나 분화의 기회를 마련한다.
- 성과와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인정하고 보상하는 성과 확인의 자리를 가진다.
- 새로운 꿈, 새로운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보다 업그레이드 된 구상으로 발전시킨다.



한살림



19 나의 경험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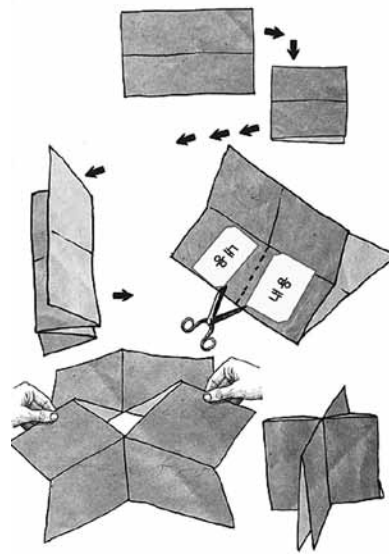
일 년간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배운 많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회고하고, 성찰하고, 그 속에서 의미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정리와 평가의 작업은 새로운 생산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난 다양한 조각을 새롭게 잇고, 결합하고, 새롭게 가공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각 사람의 일 년간의 모임농사에서 찾아진 서말 구슬을 평가와 정리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연결해 내면 그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잇는 일’은 말하기, 글쓰기, 그림그리기, 노래부르기, 만들기, 발표, 토론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자신이 정리와 갈무리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이다.





예: 성장의 결과를 표현하는 간단한 책 만들기

각자 자신이 정리할 내용이 마련되면 이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한 장의 종이에 정리한 즉석 미니책을 만들 수 있다. 한 장의 종이를 접고, 가위로 절반만 잘라내면 8면의 훌륭한 책이 만들어진다. 이런 책을 만들면 자신이 정리한 것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며칠을 두고 보면서 더 심화된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댓글 쓰기

***이럴 때 해보세요:**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힘들었던 감정들을 털어내고 싶을 때, 위로하고 위로 받고 싶을 때

***준비물:** 잔잔한 음악, 초, 예쁜 카드봉투와 엽서(참여자수만큼), 편지지 혹은 엽서

***진행방법**

- ① 봉투 안에 엽서 한 장씩을 넣어서 나눠준다.
- ② 편지지를 참가자 수만큼 갖게 한다.
- ③ 음악과 초를 켜서 분위기를 차분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 ④ 엽서에 모임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내용이나 고민 등을 적어서 봉투에 넣는다.
- ⑤ 돌려 보면서 엽서 내용에 대한 격려, 지지, 위로 등의 댓글을 편지지에 적어 봉투에 넣는다.
- ⑥ 자신의 봉투를 찾아 읽어보고 소감을 간단히 나눈다.

20 공동경험을 집단지성으로 만들기

각 마을마다 모였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한 해 동안의 모임 활동을 돌아보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도 평가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년 주기로 역할에 대한 변화를 주면 모임을 지속시키는 데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마을 모임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행사를 연다면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생각을 집단적으로 조직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즉 여럿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일방적인 발표회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참가자가 모두 이야기하고 모두가 듣는 집단적인 생각나눔을 해보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서로의 지혜를 빌려서 집단적인 지혜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예: 집단지성을 조직하는 월드카페

***이럴 때 해보세요:** 마을모임이 함께 모여서 공통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행사

***준비물:** 전지, 굵은펜, 포스트잇

***진행방법**

- 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다. 월드카페의 주제는 질문으로 표현된다.(예: 마을모임에서 개인은 무엇을 배울까? / 마을모임을 잘 운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등등)
- ② 최소 2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보통 4~6명 정도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배치 한다.
- ③ 테이블에는 한가운데에 대화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큰 종이를 펼쳐놓고 싸인펜, 색연필과 같은 필기도구와 포스트잇을 준비하여 올려놓는다.
- ④ 각 조마다 호스트 1인을 선정한다. 호스트의 역할은 참가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주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며, 이후 대화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 ⑤ 테이블별 대화를 진행한다. 대화를 진행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각종 기록의 도구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한다. 본인만 볼 수 있는 메모를 하는 것보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의 종이에 메모를 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쓴 메모에 의견을 달거나 연결선들을 그려볼 수도 있다. 대화가 진행될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좋다.
- ⑥ 20~30분간의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전체 진행자가 1차 대화가 끝났음을 알린다. 1차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는 대화 시작 전에 미리 참가자들에게 주지시킨다. 음악을 크게 틀어주거나 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끝나기 5분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1차 대화 내용을 마무리해줄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1차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테이블 호스트 1인만 남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는데, 이때 자신의 테이블에서 다른 조로 가지고 갈 만한 아이디어를 메모한다.(다른 카페로 입장하는 입장권 만들기) 이동시에는 최대한 앞선 테이블에서 만난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골고루 섞인다. 테이블을 이동하는 이유는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기 위함이다.

- ⑦ 테이블 이동이 완료되었으면 테이블 호스트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앞선 테이블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짧막하게 2~3분 정도 내에서 소개한 후, 참가자들이 가지고 온 아이디어 카드를 꺼내서 테이블 위의 이야기와 연결시키거나 참가자들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토론을 한다.
- ⑧ 이 테이블 이동 과정을 규모와 정해진 시간에 따라 몇차례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래 자신의 출발지로 돌아가면서 그동안 발견했던 아이디어나 새로운 생각을 메모에 적어서 가져간다. 테이블 호스트들은 최종적인 종합토론을 통해서 최초의 질문에 대한 발전된 아이디어나 해법을 조원들과 정리한다. 전체 진행자는 각 테이블 호스트들에게 최종적인 정리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고, 전체의 내용을 종합한다.



마을모임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1. 모임운영

1) 마을모임의 연간 실천 활동(예시)

- 1월 : 모임 참가자 모집 / 어린이 겨울 생명학교
 - 활동: 연간 세부 활동계획 수립 / '마을모임 한 해 살이' 표 만들기
 - 마을조사, 마을모임에 참가할 사람들 모집, 명단 작성
- 2월 : 조합원 총회 / 봄맞이하기 / 생산지 방문(대보름 행사)
 - 활동: 대의원 선출, 총회 때 마을모임 활동계획 소개
 - 복글씨 쓰기(입춘대길 글씨 써서 참가자들 집마다 붙이기)
- 3월 : 한살림 이해하기 / 이웃 알기와 지역과 만나기 / 조합원활동(장 담그기 행사 등)
 - 활동: 한살림 이해하기, 이웃 알기와 마을지도 그리기
- 4월 : 조합원 맞이의 달 / 씨앗심기 / 생산지 방문(딸기 생산지)
 - 활동: 화분, 텃밭에 씨앗심기
- 5월 : 축하와 감사 / 생산지 방문(손모내기 행사)
 - 활동: 폐현수막으로 카네이션 만들기 / 어르신이 사는 집에 꽃 달아 주기
- 6월 : 그늘 찾기 / 단오잔치 / 유기데이
 - 활동: 적당한 모임장소 찾기와 꾸미기(의자놓기, 그늘막 치기)
 - 단오, 유기농의 본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 7월 : 여름 수확 즐기기 / 어린이 여름 생명학교 / 생산지 일손돕기
 - 활동: 부침개 만들기
- 8월 : 청소년들과 자원봉사 활동 / 생산지 일손 돕기
 - 활동: 마을 청소년 좋은 점 찾기, 칭찬 게임
- 9월 : 마을 청소하기 / 알뜰장터 열기
 - 활동: 주말에 마음을 모아서 가을맞이 대청소
- 10월 :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 / 메뚜기 잡기 행사 / 생산지 일손돕기(사과따기 등)
 - 활동: 추수(가을걷이)의 의미 나누기, 햇곡식으로 음식 해서 나누기,
 - 꽃이나 곡식을 이용한 장식품 만들어 현관에 걸기 등
- 11월 : 서로 배우고 나누기 / 마을모임 활동경험 나누기 / 농민의 날, 가래떡데이 행사 등
 - 활동: 한 해 동안 배운 것들 한 가지씩 서로 알려주기
- 12월 : 동지선달 / 한 해 마무리와 새해 계획 세우기
 - 활동: 동지팥죽 같이 만들기

2) 절기음식

절 기	음 식
입춘(立春, 2월 4일경) (봄의 시작을 알린다)	오신채(생채와 숙채)-미나리, 당귀쌈, 다래, 냉이, 메갓 "입춘 이전에 새싹 세 지를 먹으면 보약을 먹는 것과 같다"
우수(雨水, 2월 18일경) (봄비가 내린다)	오곡밥-쌀(찰쌀), 보리, 조(기장), 수수, 콩(팥), 귀밝이술
경칩(驚蟄, 3월 5일경) (개구리가 깬다)	개피떡(바람떡), 들나물-냉이, 풍년초, 엉겅퀴, 고로쇠 물 마시기 우수, 경칩에 장을 담근다.
춘분(春分, 3월 21일경) (낮이 길어진다)	쓴나물 무침-민들레, 씀바귀, 냉이
청명(淸明, 4월 5일경) (봄 농사 준비)	진달래 화전, 화면(수면)
곡우(穀雨, 4월 20일경) (농사비가 내린다)	곡우물 전통차
입하(立夏, 5월 6일경) (여름 시작)	장아찌 김밥-무, 오이, 마늘쫄, 더덕 육포-편포, 대추포, 칠보편포
소만(小滿, 5월 21일경) (농사 시작)	산채, 민물매운탕
망종(芒種, 6월 6일경) (씨뿌리기 시작)	수리취떡, 제호탕
하지(夏至, 6월 22일경) (낮이 가장 길다)	감자전, 감자송편
소서(小暑, 7월 7일경) (장마철 시기)	보리밥, 상추쌈
대서(大暑, 7월 23일경) (더위가 가장 심하다)	보리단술, 밀전병
입추(立秋, 8월 8일경) (가을의 시작)	말린 나물-들무우순, 다래순, 비비추, 홀아비꽃대, 두릅, 붉나무순, 가지(가을가지는 막내사위도 안준다)
처서(處暑, 8월 23일경) (일교차가 가장 심하다)	묵 음식-메밀묵, 도토리묵, 녹두묵(청포와 황포), 더덕냉국
백로(白露, 9월 8일경) (이슬이 내린다)	버섯음식
추분(秋分, 9월 23일경) (밤이 길어진다)	오리송편, 토란탕
한로(寒露, 10월 8일경) (찬이슬이 내린다)	국화전, 부각과 튀각
상강(霜降, 10월 23일경) (서리가 내린다)	홍시, 겉절이, 수수부꾸미
입동(立冬, 11월 7일경) (겨울의 시작)	김장 김치-배추김치, 백김치, 갓김치 쓴나물김치-민들레, 씀바귀, 고들빼기
소설(小雪, 11월 22일경) (얼음이 언다)	약초장아찌
대설(大雪, 12월 7일경) (큰 눈이 내린다)	콩비지찌개, 두부음식
동지(冬至, 12월 22일경) (밤이 가장 길다)	동지팔죽, 동치미
소한(小寒, 1월 6일경) (강추위가 온다)	식혜와 흰떡구이
대한(大寒, 1월 20일경) (겨울의 추위)	평고기찜, 참새구이 한과-쌀강정, 깨강정, 유과

3) 한살림의 열 가지 다짐

- ① 생명의 질서에 맞게 살면서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 ②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겠습니다.
- ③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④ 생명의 밥상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 ⑤ 항상 자연을 가까이하면서 공부하며 살겠습니다.
- ⑥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⑦ 내가 먼저 평화가 되겠습니다.
- ⑧ 성찰과 대화로 평화롭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 ⑨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 ⑩ 내가 변하는 만큼 세상이 변할 수 있음을 믿고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4) 마을모임 관련 한살림의 생활수칙

하나. 밥을 먹을 때 :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동안 모시는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 한 그릇 밥에 담긴 천지만물의 크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 이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애쓴 수많은 이의 정성에 깊이 감사합니다.
- 밥을 정성껏 받아 모시면서 꼭꼭 씹어 먹습니다.
- 밥에 담긴 생명과 배고픈 이를 생각하며 남기지 않습니다.
- 생명의 밥을 받아먹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것을 다짐합니다.

둘. 사람을 만날 때 : 모시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 모든 사람은 우주 만물과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생명을 꽃피우는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합니다.
-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나처럼 자기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나처럼 삶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네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셋. 일을 할 때 : 이치에 맞게 일합니다.

- 주어진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 일에 최선을 다하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 세상에 필요한 일은 나부터 시작합니다.
- 일을 통해 내가 새로워지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넷. 모임 할 때 : 명상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 좌중이 울리면 모임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묵상합니다.

(둘숨에) 내 안의 신령스러운 생명을 모시고

(날숨에) 내 밖의 소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한살림의 지향과 가치를 담은 글귀를 함께 읽고 마음에 새깁니다.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은 시나 잠언을 읽습니다.

- 모임을 정리할 때도 좌중과 함께 명상합니다.

- 마음을 살피면서 대화합니다.

상대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불편해지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를 먼저 살핍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가볍게 꺼내 놓습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평정심을 잃고 고집으로 흐르지는 않는지 살핍니다.

내 이야기 속에 상대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는지 살핍니다.



5) 마을모임 관련규정(예시)

조합원활동 기초모임 운영규정(한살림대전)

제정 : 2015년 12월 1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살림대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대전)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원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사회에서 승인한 별도의 모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기초모임이란 마을모임, 소모임을 말한다.

② 마을모임이란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이 모여 물품식식과 물품활용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더하기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다. 더불어 지역과 생활의 다양한 문제(먹거리, 생태, 육아, 교육)들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임이다.

③ 소모임이란 한살림이 지향하는 바를 바탕으로 관심과 취미가 비슷한 조합원들끼리 서로 재능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임이다.

④ 마을모임지기, 소모임지기란 각 마을모임과 소모임을 이끌고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모임의 조직】 ① 조합원은 지역, 연령, 관심사항 등에 따라 자유롭게 모임을 조직하여, 조합에 모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모임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며 조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마을모임의 구성원 수는 최소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6개월 이후 모임 분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소모임의 구성원 수는 최소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⑤ 소모임은 5인 구성이 되지 않은 경우 예비소모임 신청서를 신청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인원 모집 홍보를 할 수 있다.

⑥ 모임 구성원 수의 변동과 추가는 담당활동가와 소통하여야 한다.

⑦ 모임에는 비조합원 참여도 가능하나 그 비율이 과반수 미만이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가임을 독려한다.

제5조【모임의 운영】 ① 모임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모임은 모임진행매뉴얼에 따라 진행한다.

③ 모임 의안서를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과 활동을 함께 공유한다.

④ 모임 구성원들은 조합의 물품에 대한 책임소비 의무와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모임구성원들은 조합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다양한 소통과 나눔의 장을 활성화한다.

⑥ 모임 운영은 연말에 연간계획서를 세우고 총회 이후부터 진행한다. 단 총회 이후 신청한 모임은 담당활동가와 소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에 따라 이사장 결정에 따른다.

⑦ 모임 목적에 따른 추가 활동의 경우 모임 구성원과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 그 비용은 모임에서 부담한다.

마을지기 운영규정(한살림고양파주)

- ⑧ 모임은 조합원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 ⑨ 모임 진행 후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담당 활동가와 소통한다.

제6조【모임지기의 선출】① 모임지기는 해당 모임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 ② 모임지기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모임지기의 역할과 책임】① 모임 진행을 총괄한다.

- ② 지난 모임 참석자와 연락, 신규조합원 등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한다.
- ③ 모임지기는 담당 활동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보고서, 장소, 현황, 비용처리 등에 대해 협의한다.
- ④ 모임진행 전에는 조합원에게 모임안내를 하고 장소섭외 및 안내소식지 수령, 시식물품을 챙긴다.
- ⑤ 모임진행 후에는 모임 보고서 작성제출, 지출결의서 제출, 모임 활동보고, 온라인 업로드를 한다.
- ⑥ 모임지기는 연4회 모임장 모임(교육 및 소통)에 참여해야 하며, 모임 계획서와 평가서를 년1회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모임진행 매뉴얼과 보고서】① 모임진행 매뉴얼과 보고서는 별첨자료에 따른다.

제9조【모임 신청 및 승인】① 모임 신청접수는 조합원활동 기초모임 지원활동가가 담당한다.

- ② 모임 신청시 조합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모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③ 모임 접수 후 승인 절차에 따라 이사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모임 승인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모임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모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다. 모임 의안서 또는 소식지를 통한 조합 사업과 활동에 대한 공유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② ①항 나, 다의 경우 다시 활동이 정상화되면 재승인 할 수 있다. 재승인 절차는 제9조의 승인 절차와 동일하다.

제11조【모임에 대한 지원】

- ① 마을모임의 원활한 모임 운영을 위하여 시식물품과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 ② 마을모임은 구성원 수에 따라 시식물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③ 소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 ④ 기초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영리행위 금지 및 개인정보 보호】① 모임에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홍보, 시식, 체험 등 일체의 영리행위 및 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하는 조합원은 모임의 참여를 금한다.

- ② 모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의 모임 참여를 금한다.

제1조 (정의) 마을모임은 같은 지역에 사는 한살림 조합원들이 모여 생활과 마음을 나누고, 지역과 생활의 다양한 문제(안전한 먹거리, 생태, 육아)들을 고민하고 한살림 정신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며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는 생활공동체 모임을 말한다.

제2조 (마을지기 활동) 마을지기는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마을모임의 대표를 말한다. 마을모임 구성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모임 구성원의 승인을 얻어, 지역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지역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이사회가 선임 함).

제3조 (마을모임 운영) 마을지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행한다.

1. 마을지기가 소속된 마을 모임의 진행
2. 운영위원회 및 담당 상근 활동가와 소통
3. 한살림과 조합원의 매개체 역할로서 모임 진행 준비와 연락
4. 모임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을지기 회의에 참석한다.

제4조 (마을모임의 준비) ① 의안서 및 보고서: 한살림 고양 파주 홈페이지(www.goyang.hansalim.or.kr)의 지역모임방에서 다운받아 지역에 맞게 만든후 복사하여 사용한다.

- ② 마을모임 진행 비용: 한살림 시식물품과 활동비용으로 일정액의 활동비를 사용 할 수 있음. 단, 활동비는 별도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사용함.

제5조 (마을모임의 연락) ① 마을지기가 모임에 참여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한다.

- ② 마을모임 문자는 활동실(담당활동가)에서 발송한다.

제6조 (마을모임의 진행) ① 진행은 마을모임 의안서대로 자유롭게 진행하며, 주제 활동을 한다.

- ② 소식지, 물품지에 실린 내용들을 꼭 숙지하고 해당 내용을 함께 나눈다.
- ③ 모임 진행내용은 담당활동가가 도움을 준다.
- ④ 주제활동은 지역전체가 공통의 주제를 가질수도 있고 해당 마을모임에서 요구하는 것들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마을모임 보고서 작성) 모임 후 3일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서는 담당활동가에게 메일로 보내고 모임내용과 사진은 마을지기가 마을모임방에 올린다.

제8조 (마을지기 지원금) 마을지기는 마을지기에 선임된 후 일정액의 활동비를 보조 받는다. 활동비 보조금 액수와 지급 절차는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9조 (마을지기 회의 및 워크숍)

- ① 한 달에 한번 담당활동가와 진행한다.
- ② 마을모임에서 공통으로 나눌 내용과 정보 공유와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다.
- ③ 상.하반기 워크숍을 1회씩 진행한다. (대상: 마을지기, 담당활동가, 이사장, 활동실장)

2.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1) 그림 이어 그리기

*이럴 때 해보세요 : 상대방의 마음 배려하기

*준비물: 도화지, 색연필, 크레파스

*진행방법

- ① 도화지와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나눠준다.
- ②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 표현한다.
- ③ 도화지에 처음 그렸던 사람은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림의 주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했는지 느껴보고 그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마음으로 지지해 주고 싶은 것을 추가로 그려준다.
- ④ 그림이 자신에게 돌아오면 그림을 벽에 붙인다.
- ⑤ 한 사람씩 자신의 그림 중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지우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왜 그런지 이야기한다.
- ⑥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왜 자신이 그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 ⑦ 활동 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2) 나는 소망한다.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이럴 때 해 보세요 :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타인의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서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싶을 때

*준비 : 질문지를 참여자 수만큼 미리 복사하기,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질문지를 읽고 해당하는 점수를 적는다.
- ② 10단위씩 점수를 합산한다.(1-10/11-20/21-30/31-40/41-50)
- ③ 나의 욕구를 파악한다.(가장 높은 점수는?)
1-10:생존욕구 / 11-20:사랑과 소속의 욕구 / 21-30:힘과 성취의 욕구 / 31-40:자유의 욕구 / 41-50:즐거움의 욕구
- ④ 서로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⑤ 모임 안에서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며 함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여기서 잠깐!!

이 검사지는 심리학자 윌리엄 글래서가 만든 욕구강도 검사이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5가지의 욕구가 있고 인간 행동은 욕구를 끊임없이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욕구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아래 질문에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점수로 표시하세요.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때때로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언제나 그렇다

- 1 돈이나 물건을 절약하는가?
- 2 돈으로 살수 있는 것에 각별한 만족을 느끼는가?
- 3 자신의 건강 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 4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 5 이성에 관심을 많이 지니고 있는가?
- 6 매사에 보수적인 편인가?
- 7 안정된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하는가?
- 8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모험을 피하고 싶은가?
- 9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데 관심이 있는가?
- 10 쓸 수 있는 물건은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가?
- 11 나는 사랑과 친근감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
- 12 다른 사람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가?
- 13 타인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내는가?
- 14 장거리 여행 때 옆자리의 사람에게 말을 거는가?
- 15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하는가?
- 16 아는 사람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는가?
- 17 배우자나 연인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가?
- 18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라는가?
- 19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 20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좋아해 주기 바라는가?
- 21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해 사람들로부터 인정 받고 싶은가?
- 22 다른 사람에게 충고나 조언을 잘 하는가?
- 23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잘 지시하는가?

- 24 경제적으로 남보다 잘 살고 싶은가?
- 25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좋아 하는가?
- 26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쉽게 해고 하겠는가?
- 27 내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 28 어떤 집단에서든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 29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가?
- 30 내 성취와 재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 31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려고 하면 참기 어려운가?
- 32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면 참기 어려운가?
- 33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믿는가?
- 34 누구나 다 인생을 살고 싶은 대로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가?
- 35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능력을 믿는가?
- 36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기를 원하는가?
- 37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가?
- 38 인간은 모두 자유롭다고 믿는가?
- 39 배우자나 연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 40 나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가?
- 41 큰소리로 웃기를 좋아 하는가?
- 42 유머를 사용하거나 듣는 것이 좋은가?
- 43 나 자신에 대해서도 웃을 때가 있는가?
- 44 뭐든지 유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운가?
- 45 흥미 있는 게임이나 놀이를 좋아 하는가?
- 46 여행하기를 좋아 하는가?
- 47 독서하기를 좋아 하는가?
- 48 영화 구경 가기를 좋아하는가?
- 49 음악 감상하기를 좋아 하는가?
- 50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거나 생각해 보는 것이 즐거운가?

*5가지 욕구 이해

생존욕구 : 살고자 하고 생식을 통해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욕구, 건강과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 친구들을 갖고 싶은 욕구, 가족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소속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살기도를 하기도 함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 : 경쟁, 성취, 중요한 존재이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 인간만이 힘 그 자체를 위해 투쟁, 소속의 욕구와 직접적인 갈등이 되기도 함(결혼 이후 갈등하는 부부의 예)

자유에 대한 욕구 :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에 대한 자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즐거움에 대한 욕구 : 배우고 싶어 하고 즐기고자 하는 욕구, 학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인간은 놀이를 통해 배우는 존재, 우리가 웃는 이유는 순간에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강한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 우리는 즐거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함

3) 우리 가족 식생활 돌아보기

*이럴 때 해보세요: 가족의 먹을거리를 점검하고 싶을 때

*준비물: 질문지,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질문지를 나눠준다.
- ② 질문지에 답을 점수로 적는다.
- ③ 점수를 합산하고 느낌을 서로 나눈다.

〈건강음식 행동지수〉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질 문	점 수
매끼 녹색채소(시금치,호박 등)를 먹는다.	
우리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먹는다.	
유기농 채소를 구매하려 노력한다.	
다양한 나물을 골고루 먹는다.	
고기를 먹을 때 채소를 함께 먹는다.	
쌈을 즐기고 좋아한다.	
채소나 나물의 영양가를 알고 있다.	
매끼 잡곡밥을 먹는다.	
빵이나 떡을 고를 때 잡곡류가 섞인 것을 고른다.	
잡곡의 영양가와 건강 기능성을 알고 있다.	
다양한 잡곡류를 얻으려 노력한다.	

매끼 발효음식(김치, 된장 등)을 먹는다.	
소금보다 집간장으로 음식 간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집에서 직접 발효음식(김치, 된장 등)을 만든다.	
발효음식(된장, 고추장)을 가정에서 직접 만든 것을 구매한다.	
발효음식의 영양가와 건강 가능성을 알고 있다.	
제철 신선 식재료를 구입한다.	
제철 식품을 주로 먹는다.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제철 식품의 우수성과 건강성을 알고 있다.	
가공식품 선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식재료 구매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	
직거래 장터를 자주 이용한다.	
식재료 구매시 농산물 이력추적제를 확인하고 고려한다.	
식재료 구매시 유통경로를 생각하고 선택한다.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들을 확인하고 선택한다.	
우리 고장 식재료를 구매하려고 노력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선택한다.	
평소 한국 전통음식(밥, 국, 김치, 나물류)을 좋아한다.	
점수 합계	

60점 이하 : 적색 식생활습관 61-80점 : 식습관 개선요구
81-100점 : 식습관 수정노력 101-120점 : 바람직한 식습관
121점 이상 : 녹색 식생활습관

4) 갈등 상황에서 나의 대응방식 이해하기(갈등유형 점검)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동료들과 당신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세요.

우선 1-10번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즉 갈등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나의 즉흥적 반응입니다.

다음 11-20번은 다른 사람과 의견차이가 커졌을 때, 즉 다른 사람과 갈등이 커져 감정이 격해졌을 때의 나의 반응입니다. 만약 생각나는 갈등의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문장에 반드시 하나의 숫자에만 √표시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설사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열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의견과 입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그 수위를 조금 낮추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토론이나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 상대방과 불편하고 긴장되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개인적 목표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의견을 설명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목적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①	②	③	④	⑤
9	서로의 차이와 다름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만약 이견이 지속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 나는.....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나의 요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기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내가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은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의견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에 조금 뒤로 물러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6	상대방과의 직접적 접촉을 줄이고,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선 결정해야 할 상황을 일단 해결하고 나중에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상대방의 감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큼 나의 요구도 관철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중용과 타협으로 일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한다.	①	②	③	④	⑤

결과 정리

각각 해당되는 항목의 점수를 빈칸에 쓰고 그 후 두 항목의 숫자를 합한 합계를 낸다.

1. 차분한 상황

번호	1:	2:	3:	4:	5:
	7:	8:	10:	9:	6:
합계					
유형	협력	강요/대립	타협	회피	양보/순응

2. 고조된 상황

번호	11:	12:	13:	14:	15:
	19:	17:	20:	16:	18:
합계					
유형	협력	강요/대립	타협	회피	양보/순응

3. 높은 숫자부터 합산된 점수와 나의 대응유형을 쓰고 서로 이야기 나눈다.

갈등이 시작되는 차분할 때 반응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반응	
점수	대응유형	점수	대응유형

※ 이 조사는 각각 두 가지의 상황에 대응하는 다섯 가지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차분할 때에 해당되는 점수는 이견이 처음으로 나타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며, 고조일 때에 해당되는 점수는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의 반응이다. 점수가 높은 방식이 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대체로 최고점과 절반 차이가 없다면)는 소위 Backup Style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전 방식에 걸쳐 점수가 비슷하다면 갈등대응에 있어 어느 특정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Mennonite Conciliation Service, *Mediation and Facilitation Training Manual : Foundations and Skills for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4th Edition)* p.64-66

5) 가위바위보 게임

*이럴 때 해보세요: 낮설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

*준비물: 없음

*진행방법

- ① 둘씩 짝을 지어 오른 손으로 악수를 하고, 팔씨름 포즈를 취한다. 왼손을 사용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손등을 때릴 수 있고, 진 사람은 자신의 손등을 막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진 사람이 손등을 때리는 것으로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
- ② 둘씩 짝을 지어, 서로 역할을 홀, 짝으로 나눈다. 가위, 바위, 보를 숫자로 바꾼다. 가위는 2, 바위는 1, 보자는 5로 숫자를 정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온 숫자를 더한다. 더한 숫자가 홀이면 홀이 이기고, 짝이면 짝이 승리한다.

6) 인터뷰게임

*이럴 때 해 보세요: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낯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싶을 때

*준비 : 메모지와 필기도구

*진행방법 :

- ①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나눠주고 2명씩 짝을 짓는다.
- ② 짝궁을 서로 인터뷰한다. 질문할 내용은 진행자가 먼저 제시해 준다.(예:이름, 나이, 사는곳, 취미, 특기, 성격, 최근에 재미있었던 일 등등)
- ③ 인터뷰할 때 메모지에 기록한다.
- ④ 기록한 내용을 재구성해서 내가 짝궁이 되어서 자신을 소개한다.

7) 다양성의 인사

*이럴 때 해보세요 :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의 다름을 기꺼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싶을 때

*준비물: 메모지,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상대방의 특성과 현재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유한 것을 모임에 초대하는 일이 필요하다.
- ② 적자생존(P66)을 하고 난 후, 소개한 내용을 기억했다가 기억나는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혹은 두명씩 짝을 지어 서로 인터뷰를 하게 한 후 그 사람의 특징이나 상태를 요약하여 환영사로 표현한다.

TIP

예1) 옆사람을 인터뷰하고 환영사를 할 경우 - 모임에 급히 오느라 세수도 못하고 오신 맨얼굴의 000여사를 환영합니다.

예2) 적자생존으로 서로 소개하고 환영사를 할 경우 - 지난주에 000일이 있었던 000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환영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그를 환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소개하고 나면 마무리된다.

8) 적자생존(적는 자는 생각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럴 때 해보세요 : 깊은 경청과 적절한 자기표현을 나누고 싶을 때

모임에서 가장 손쉽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집중하느라 앞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 깊은 공감이 이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앞사람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골몰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사라져 버리고, 모임의 분위기, 앞사람의 이야기에 맞춰지는 평준화가 일어난다. 각자의 독특함이 빠진 밋밋한 이야기가 되고, 서로의 소개도 각자의 중요한 정보가 빠진 메마른 소개로 축소된다. 반면 자신의 솔직한 생각에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열고 듣는 생활 나눔의 시간은 재미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다른 생각을 아는 것을 무척 재미있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적는 과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게 하는 힘이 된다.

*준비 :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눔 주제를 미리 생각해 둔다.
- ② 이야기의 개요를 간단히 메모지에 쓴다. (기록하게 되면 나만의 주제가 정해져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 ③ 서로 쓴 것을 보여주며 발표한다. (보여주는 것으로도 시각적인 소통력이 커진다. 듣기(listen)와 보기(look)가 함께 일어나서 들어-보는 긴밀한 소통이 일어난다.)



9) 사람 책 (리빙라이브러리)

*이럴 때 해보세요: 자신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드러내고 싶을 때

*준비: A4용지, 필기도구, 색연필, 스티커(참여자수의 3배)

*진행방법

- ① 목차 만들기: 용지를 한 장씩 나눠주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책 제목과 목차를 작성해 본다
- ② 전시 및 투표: 각 책들의 목차를 전시하고 각자 읽고 싶은 책에 스티커를 붙여 투표한다. (1인당 스티커 3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책 선정: 스티커 개수가 많은 순서로 책을 선정한다.
- ④ 책이 선정된 사람은 책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앞에 나가 목차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진행한다. 시간은 전체 인원에게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 ⑤ 나머지 책들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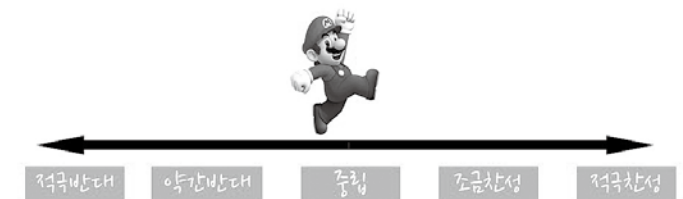
10) <스펙트럼>

*이럴 때 해보세요: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을 때

*준비물: 색종이,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서로 다른 색종이로 배를 접고 자신의 이름을 쓴다.
- ② 토론할 주제를 정한다. 주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정한다. (예: 한살림에서 커피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 ③ 테이블 위에 왼쪽 끝은 매우반대, 오른쪽 끝은 매우 찬성으로 표시해둔다.
- ④ 참여자들은 자신의 배를 찬반의 강도에 따라 일렬로 세운다.
- ⑤ 각자 그 자리에 배를 세우게 된 이유를 발표한다. 발표를 하면서 바로 옆 사람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관찰하고 자리를 바꿔야 할 경우 배의 위치를 바꿔도 좋다.



11) 다양한 생각을 손쉽게 분류하는 카드 브레인라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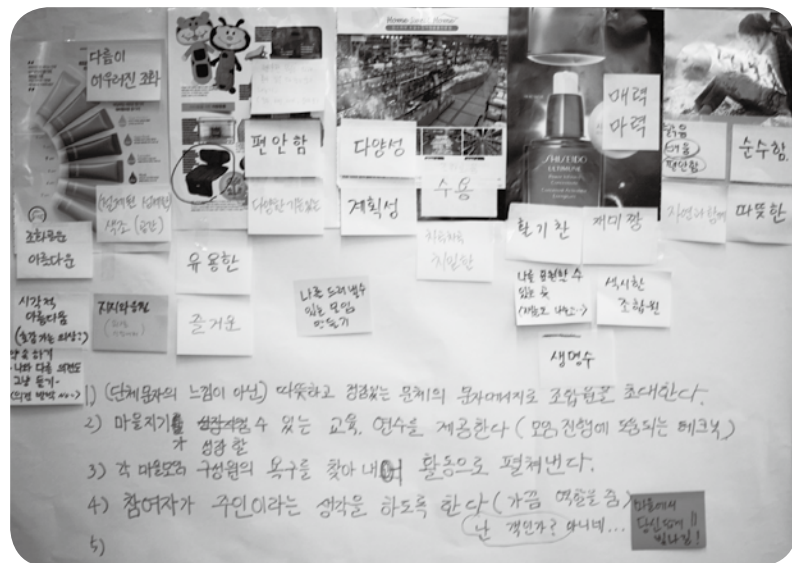
*이럴 때 해보세요: 생각을 일으키고 정리하고 싶을 때

브레인라이팅도 브레인스토밍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불러올 때 쓰는 기법이다. 차이가 있다면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말로 발표하는 브레인스토밍과는 달리 브레인라이팅은 글로 적어 낸다는 점이다.

*준비물: 전지1장, 포스트잇(2-3묶음)이나 메모지(한묶음), 유성매직이나 굵은펜(참가자수만큼)

*진행방법:

- ① 포스트잇과 매직을 나눠준다
- ② 논의할 주제를 소포지 중앙에 적어둔다(예: 마을모임의 규칙 정하기)
- ③ 참가자들은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단어들을 기록한다. 한 장에 하나의 생각만을 적도록 하며 한 사람이 최소 5장은 쓰도록 한다.
- ④ 진행자는 참여자들의 답변지를 모아서 전지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붙인다. 이때 비슷한 내용은 분류해서 같은 곳에 붙인다.
- ⑤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나눈다.



12) 마인드 맵

*이럴 때 해보세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등을 통해 모아진 생각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마인드 맵핑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리적인 면과 창조적 면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이다. 또 '보다 효과적 정리'라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저장'이라는 목적도 있다.

*준비물: 포스트잇, 매직펜, 소포지나 전지

*진행방법:

- ① 주제를 정하고 브레인스토밍 한다.
- ② 참가자들은 떠오른 생각들을 접착용 메모지에 적는다(여러 장)
- ③ 생각 메모지를 비슷한 것끼리 전지 위에 붙인다. 몇 개의 그룹이 만들어진다.
- ④ 각각의 그룹 위에 소제목을 붙인다.(예: 마을규칙을 만들 때 '배려', '친구' 등의 단어가 나왔다면 소제목을 '친밀감'으로 한다.)
- ⑤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다.

13) 로터스 생각쓰기

*이럴 때 해 보세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활동계획,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가자가 가진 가능한 아이디어와 점검해야 할 과제들을 균형있게 검토하고 싶을 때

*준비물: 로터스 기록양식

*진행방법

- ① 주제를 정하고 한가운데에 적는다.
- ② 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 혹은 검토과제, 실행방안 등을 1-8에 한 가지씩 적는다.
- ③ 1-8까지의 내용을 재정리해서 1-1에서 8-1에 옮겨 적는다.
- ④ 1-1부터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각자의 의견, 보완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과제 등을 기록한다.
- ⑤ 주제와 관련해서 64가지의 관련요소가 발굴되면, 관련요소별로 심화토론을 이어간다.

	①-1						③-1	
			①	②	③			
			④	주제	⑤			
			⑥	⑦	⑧			
	⑥-1						⑧-1	

14) 결정하고 선택하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채택하면 된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일치의 토대를 확인하고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질 수가 있다. 이는 당사자들의 경험, 관점 등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결정과 선택은 합의의 토대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 다수결은 최종적인 결정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 다수결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합하거나 대립하는 안을 놓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마을모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모두의 흔쾌한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덧셈의 과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수결을 사용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에 국한해야 한다.
- 끝까지 대립되거나 경합하는 안을 가지고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직 선택하거나 결정할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즉 무리하게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은 모임 전체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것을 모임이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결정을 미뤄야 한다.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학습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결정을 하는 지름길이다.
- 다중투표법: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다수결의 방법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안을 선택하고, 점수가 적은 안은 제외하는 방법이다.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선택한 것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며, 따라서 선택된 안에 대해서 모든 참가자들은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전을 심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토론을 병행하면 만장일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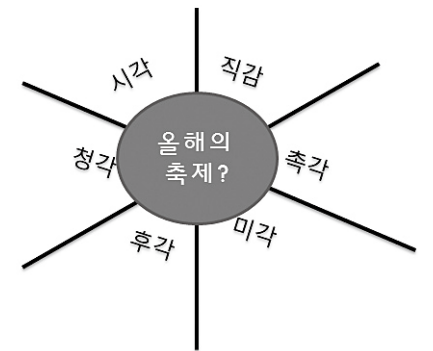
15) 육감도

*이럴 때 해 보세요: 공통의 관심사가 모아질 때, 이 관심사에 대한 다각도의 관점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면밀하고 풍성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준비물: 전지, 매직(참가자 숫자만큼), 포스트잇

*진행방법

- ① 전지의 한가운데에 논의의 주제를 쓰고 부챗살 모양으로 6개의 영역을 구분한다.
- ② 각 영역에 6가지 판단의 이름을 쓴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육감)
- ③ 한 영역씩 다같이 집중해서 해당 감각으로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써 넣는다. 포스트잇으로 각자 쓰고 붙이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 ④ 여섯 가지 영역을 다 쓰고 나면 다시 한 영역씩 분류해서 정리하거나, 혹은 카드브레인라이팅 방식으로 재분류하거나, 마인드맵을 그리는 등으로 결과를 정리해서 활용한다.



16)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럴 때 해 보세요: 이웃들을 객관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공통의 과제를 발굴하고자 할 때

같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마을의 다양한 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낮은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행자의 관점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관찰하다보면 익숙한 풍경도 새롭게 다가온다. 낮설게 바라보기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으며,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욕구를 이해할 수도 있다.

*준비물: 전지, 매직(참가자 숫자만큼), 포스트잇, 마을지도(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출력)

*진행방법

- ① 전지에 우리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연령대로 구분해서 칸을 만든다.
(예시)

연령대	관심사	필요한 일감
어린이		
청소년		
청년		

- ② 연령대별로 해당 주민들을 떠올려 보면서 관심사, 현안을 찾아본다.
- ③ 서로 연관되는 공통과제나 해결방안을 일감으로 찾아낸다.

17) 여섯가지 색깔로 생각하는 입장

*이럴 때 해 보세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분명하게 짚어야 할 점을 다 같이 점검하면서 구상의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하고자 할 때

(각각의 색깔카드는 하나의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나 팀원들이 한순간에 하나의 관점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누지만 그것이 일정한 방향에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준비물: 여섯 가지 색깔의 카드(파랑, 흰색, 빨강, 초록, 노랑, 검정)

*진행방법

① 색깔의 의미를 알아둔다.

- 파랑: 냉정한 사고, 문제를 정의하고 사고를 조직화하고, 토론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게 한다.
- 흰색: 정보, 중립적이며 객관적 정보/수치/사실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논의를 위한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은다.
- 빨강: 직관/감정, 비이성적인 측면, 감정/느낌이 당당히 공개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게 한다.
- 초록: 창의적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창의적인 다른 대안과 다른 방식을 제안, 최대한 창조적 노력을 하도록 유도
- 노랑: 긍정적, 건설적 측면 찾음, 긍정적 가치, 이익을 찾고, 유용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 검정: 부정-비판적인 사고, 부정적 측면/실행 불가능한 이유에 집중함으로써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밝혀내는 역할

② 논의할 주제를 설명하고 다같이 파랑색 카드를 들고,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한다.(예를 들어 다같이 파랑색 카드를 들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혹은 이 주제를 어떻게 의논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한다.) 이후에 다양한 색깔을 다 같이 들고서 그 색깔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활용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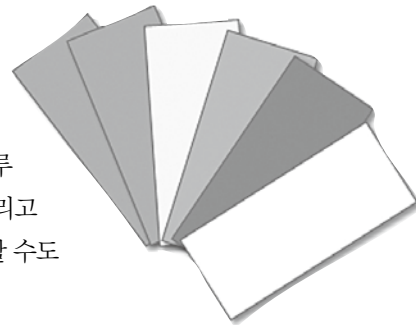
① 처음: 흰색과 빨간색 카드를 들고 사실적 면과 감정적 면에 대해 이야기하기

② 중간: 노랑과 검정 카드를 번갈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③ 발전: 초록 카드를 쓰고 더 좋은 방법 생각해내기

④ 결론: 파랑 카드를 쓰고 결론 내리기

③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으나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 보기 위해서 색깔의 순서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파랑카드를 사용해서 토론내용을 각자 요약할 수도 있다.



18) 나만의 핸드메이드 책

*이럴 때 해보세요: 개인의 성장과 결과를 정리하고 기억하고 싶을 때, 연말에 조합원 책전시회를 열고 싶을 때

*준비물: 작은 공책, 색연필, 주제관련자료(사진, 영수증, 입장권, 포장지, 상표, 나뭇잎 등등), 접착 테이프, 공책 겉표지에 쓰고 싶은 포장지, 가위, 필기도구

*진행방법

- ① 만들고 싶은 책의 주제를 정한다.
- ② 책의 개요를 잡는다.
- ③ 관련 자료를 선택하고 배열한다.
- ④ 공책의 표지를 꾸민다.
- ⑤ 사진, 그림 등을 모아서 오리거나 붙여서 각 페이지를 꾸민다.
- ⑥ 관련된 글을 쓴다.



활용 - 여행책, 요리책, 마을모임에서 만든 동의보감 등을 만들어도 좋아요~~~
참고도서 - 여행을 스크랩하다(히라사와 마리코 외 9명 지음, 인디고 출판)

19) UCC 만들기

*이럴 때 해보세요: 마을활동 발표회 자료만들기, 총회 보고자료 만들기

*준비물: 포스트잇, 스마트폰, 영상편집프로그램

*진행방법

- ① 한 장의 종이에 8개의 칸을 그린다.
- ② 표현하고자 하는 줄거리를 구상한다.
- ③ 줄거리를 8개의 내용으로 구분한다.
- ④ 각 칸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의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8개의 칸에 각각 기입한다.
- ⑤ 예상되는 연출장면을 각 칸에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스케치한다.
- ⑥ 순서에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촬영결과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하고 음향 효과를 넣어서 완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0) 손가락으로 말하기(Five to fist)

*이럴 때 해보세요

- 두 개로 나누어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두 안건을 스펙트럼처럼 펼쳐놓고 다양한 관점으로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
- 모두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만, 구체적인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얼마나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생각을 다양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준비물: 토론할 주제

*진행방법

- ① 토론할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손가락의 규칙을 정한다.(예를 들어 전적으로 찬성할 경우는 5개를 다 펴고, 찬성하는 데 꺼려지는 것만큼 손가락을 접는다. 반대할 경우는 주먹을 꼭 쥐는다.)
- ②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각자 자신의 생각을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 ③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손가락 숫자가 의미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 ④ 모두가 설명하고 나서 다시 자신의 손가락 숫자를 수정하거나, 접은 손가락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할 수도 있다.
- ⑤ 손가락의 숫자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로 편을 나눠서 두 가지의 대비된 입장으로 나눠서 심층적인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의 예시

- ①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일기장을 담임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 이에 대해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면 주먹을,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섯 손가락을 편다. 그 사이에는 각자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 ② 여름휴가를 다음주말 동해로 가기로 했다.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뭔가 혼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각자 이 휴가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적극 찬성이면 다섯 손가락을, 다음은 찬성하는 만큼을 손가락으로 표현한다.
- ③ 유기농 커피를 판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찬성과 반대로 나눠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찬성하는가에 대한 찬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우려되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본다.



수고하셨습니다~!



〈2015 한살림기초조직 연구모임〉

방혜정(성남용인 활동실장)
 이경남(대전 활동실장)
 김순임(청주 활동실장)
 조경은(경기동부 활동실장)
 서미영(고양파주 활동실장)
 심상미(서울 조직활동지원팀장)
 유은희(경기서남부 활동가)
 신재훈(연합 조직지원팀장)
 김의욱(서울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박유라(모심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한살림 마을모임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박맹수

발행처 모심과살림연구소

편집디자인 디자인 미창

집필·정리 정규호 김의욱 박유라

도움 주신 분들 2015년 한살림 기초조직 연구모임